

메이저, 자원매수전략 강화

- 수익성 악화로 자원개발은 저조
- 89년에 100억달러, 88년은 151억달러 매입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석유자본을 비롯해 세계의 석유업계는 원유생산을 줄여가는 반면에 에너지자원 매입에는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美國의 석유업계 및 증권회사가 추계한 바에 의하면, 석유·천연가스 매장량의 매입이 세계전체에서 88년은 151억달러로 최고액을 기록했으며 89년에도 100억달러에 육박할 듯 하다. 이러한 현상은 수익성 악화로 인해 석유회사들이 손을 재빨리 써 보유자원을 많이 확보하는 전략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석유회사 자체를 팔고사는 대규모 거래로 발전할 가능성도 크다.

최근 보고된 美國메이저 4개사의 89년 1~9월간 원유생산량(누계)은 셰브론社 이외에는 모두 전년동기 보다 감소되었으며, 4개사 합계도 역시 6%나 줄었다. 이에 대한 주원인은 美國에서의 석유수요 감퇴로 분석된다.

수요감퇴와 아울러 석유제품·석유화학 제품의 가격 하락으로 말미암아 순이익도 감소하였는데, 「자산매각 이익」이 컸던 텍사코社를 제외한 엑슨, 모빌, 셰브론 3사의 순이익은 전년동기에 비해 16%~35%나 줄어들었다.

그러나 설비투자액은 오히려 40%나 늘었는데, 4개사의 1~9월 합계가 160억7,800만 달러에 달한 것이다. 그 내용은 에너지자원의 광구 및 매장량을 매입하는 투자가 급증한 것으로서, 메이저를 중심으로 신규개발이 아닌 수매에 의한 자원확보 경쟁이 격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美國의 증권회사인 솔로몬·브러더즈社의 최신분석에 의하면 88년의 세계 에너지매장량 수매액은 유럽과 미국의 30대회사 합계가 151억2,000만 달러로서 전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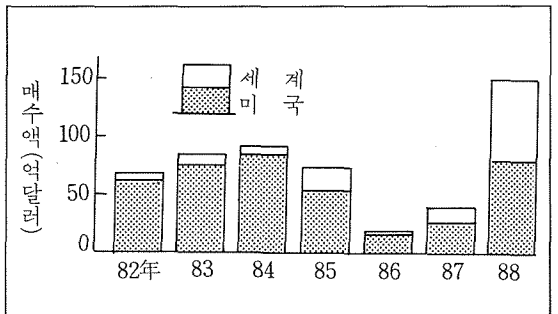
대비 3.7배에 달했다. 매장량수매액이 연간 1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美아모코社에 의하면 캐나다의 돔·페르롤리암社 합병 및 재건계획의 일환으로 텍사코社가 보유매장량을 잘라 파는등 대형거래가 속출했기 때문이다.

89년에도 벌써 엑슨社가 텍사코·캐나다를 약 39억달러에 매입하고, 美國의 독립계 대형사인 올릭스·에너지社가 英國 BP사의 광구중 13억달러어치를 사들인 자원수매가 발생했다. 때문에 이런 자원 거래규모가 88년 실적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89년에도 100억달러 정도는 확실하다는 것이 미국업계의 전문적인 예측이다.

세계의 석유업계가 새로운 유전개발을 하기 보다는, 80년대 전반을 상회할 정도의 매장량수매경쟁의 시대에 들어섰음은 이제 확실해졌다. 특히 미국에서는 석유회사의 주가가 거의 바닥시세이므로 대형석유회사 수매드라마가 또다시 불붙지 않을까 하는 전망도 있다.



◇ 세계의 석유·천연가스 매장량 매수 추이



註: 유럽·미국의 30대 석유회사 합계
자료는 솔로몬·브러더즈 작성